



전주상의, 회원기업 임직원 대상 자산관리 교육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26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회원기업 임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및 은퇴설계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회원기업 임직원들에게 체계적인 자산관리와 은퇴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재무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은퇴 이후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팀 팀장이 강사로 나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비롯해 절세와 금융상품 활용 방안 등 실질적인 자산관리 정보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은퇴 이후를 대비한 자산 설계 방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노후 준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던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재무관리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오상근 기자



전은, 남원시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기탁

남원시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사회공헌사업 ‘딸에게 보내는 선물’의 일환으로 여성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100박스(300마일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원시에 기탁된 위생용품은 남원시청 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 여성청소년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박준원 은행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는 전북은행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28일까지 신규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남원시가 신규 공직자의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고 실무 적응을 돕기 위해, 8월 28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신규자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신규 임용예정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진행. 주요 프로그램은 △공직 가치관 확립 △실무형 인제 양성 △소통 및 조직력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 새내기 공직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실무 투입 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남원시는 자체 직무 교육과 △청의적 정책설계 △남원역사 바로 알기 △공문서 작성 실무 △공공디자인의 이해 △소통 및 갈등관리 등 공직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다채로운 특강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날은 동기 간 결속력을 다지는 ‘원팀(One Team) 시너지 스프린트’ 팀빌딩 활동, 이어 창의적 사고를 통한 정책기획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탁월한 직원의 창의적 정책설계’ 특강과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배우며 자긍심을 함양하는 ‘남원역사 바로 알기’ 교육이 진행된다.

둘째 날은 남원시 인사팀과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해 인사·복무·맞춤형 복지제도 등 필수 공직 제도를 안내. 오후에는 실제 현업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공문서·보고서 작성 실습 교육과 영화 속 사례를 통해 성공 전략을 배우는 자기계발 특강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은 행정에 유연한 시각을 더해줄 공공디자인의 개념 및 정책 사례 특강 조직 내 원활한 소통 및 협업 역량을 키우는 갈등관리 교육, 설문조사를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학미래진흥원 초대 원장 선임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활용 중심 응용 한국학 진흥시키겠다”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초대 원장으로 김병기(金炳基)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를 최종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선임 진흥원장은 1964년 전북 부안 출생으로, 1988년 대만 중국문화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동양고전학과 서예학을 연구해 왔으며, 정년퇴임 후 명예교수로서 활발한 연구·저술·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선임 진흥원장은 한국중국문화학회장, 한국사학회 회장, 세계사예전북비엔날레 총감독 등을 역임했으며, 한글사예의 국가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을 주도하는 등 우리 문자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데 힘써왔다. 최근까지 중앙일보에 논어를 소재로 한 문화칼럼 ‘필향포리(筆香黃里)’를 연재하고 이를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등, 동양고전의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학미래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전북연구원이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이번 인선을 계기로 전북 지역의 한국학·지역학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대학과 연계한 인문학·인공지능(AI) 융합 교육 사업 등 한국학·지역학 진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백렬 전북연구원장은 “김병기 선임 진흥원장은 오랜 학문적 연륜과 국내외 활동을 바탕으로 한국학미래진흥원을 이끌 적임자”라며 “전북연구원도 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선임 진흥원장은 “평생 공부를 바탕으로 한국학의 진흥에 기여하라는 소명이다 생각한다. 전통적인 한국학 연구와 더불어 활용 중심의 응용 한국학도 진흥시켜, 진흥원이 미래와 세계를 지향하는 한국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오만호기자

김제신협,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 취약계층에 성금 전달

김제신협(이사장 백강석)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주관하는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을 통해 선정된 이웃에게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은 신협 임직원들로부터 취약계층을 추천받아 선정된 가정에 생계지원을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1998년 시작된 이 캠페인은 2025년 말 기준 총 956가정에 누적 29억6,7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김제신협이 추천한 이웃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성금 전달식은 김제시 신풍동에 위치한 신풍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백강석 김제신협 이사장과 오승호 신풍동행정복지센터 동장, 지원 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달된 성금은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생계지원을 비롯해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백강석 김제신협 이사장은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은 신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김제지역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선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신풍동행정복지센터 오승호 동장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제신협은 ‘행복한집 프로젝트’를 비롯해 매년 아동·청소년 대상 멘토링, 취약계층 난방용품 나눔, 사랑의 집수리 쌀 나눔, 장수사진 촬영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한옥마을 관·경 합동 전동차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한옥마을사업소·완산경찰서 참여

전주시는 28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완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전동차 대여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차 운행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와 완산경찰서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전동차 대여업체를 찾아 전동차 운행 안내 지도와 교통법규 준수 홍보문을 배부했다.

또한 △전동차 대여 시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안전모 착용 여부 확인 △전동차의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유 처리 등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캠페인에서는 전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인도 주행 및 중앙선 침범 금지 △일방통행로 역주행 금지 △제한속도(20km) 준수 등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에 대한 집중 홍보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 시는 한옥마을 주요 진입로 및 보행자 밀집 지역에 전동차 준수사항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한옥마



을 누리집을 통해서도 전동차 운행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안내하고 있다. 또, 경일 순찰과 휴일 근무자를 통해 전동차 안전 운행을 적극 계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완산경찰서와 협조해 전주한옥마을에서 전동차 안전수칙 준수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남원 금동, 올 하반기 찾아가는 경로당 간담회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영미)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관내 11개 경로당을 찾아 2026년 하반기 찾아가는 경로당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소통공간인 경로당을 찾아주요 시장과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마을 현안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 지난 7월 13일, 읍면동 순회 소통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각 부서에서 검토, 추진한 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도로·교통 등과 더불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생활편의 개선사항도 청취하면서 그동안 검토한 결과를 논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자봉센터, 전북권 통합 재난 모의훈련



재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전북 2권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수소에너지고등학교 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훈련 과목은 기상상황에서 실질적인 생명구조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1코스 응급조치법 △2코스 재난약자 운반법 △3코스 라이프라인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들은 3개조로 나뉘어 세 가지 필수 코스를 차례로 순환하며 실전 같은 실습 훈련을 소화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농협생명 전북총국, ‘혈관튼튼NH건강보험’ 교육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지광수)은 26일 농·축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9월 출시 예정인 신상품 ‘혈관튼튼NH건강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임직원들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뇌·심장·순환계 질환에 대한 대비 필요성과 관련 시장 동향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순환계질환의 위험성과 보장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디컬 특강을 비롯해 주요 판매 전략을 함께 다뤄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혈관튼튼NH건강보험’은 뇌·심장질환과 특정 순환계질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업계의 보장 트렌드를 반영해 순환계질환 3종부터 5종까지 반복적인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검사부터 치료와 재활까지 장기기간의 관리가 필요한 혈관 질환에 대비해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뇌·심장 주요 치료뿐만 아니라 스텐트 삽입술, 혈전제거술, 혈전용해치료 등 순환계질환의 주요 치료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시 학부모회협의회, 하반기 정기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26일 오전 10시 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교 학부모회장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주시 학부모회협의회 하반기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는 상반기 협의회 활동을 돌아보고 하반기 주요 사업과 교육 현안을 공유하며 학교 학부모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전북학부모회비상 운영 및 참여 방안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협의회 주요 현황과 하반기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학교별 학부모회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장재원 회장은 “학교별 학부모회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동반자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선영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는 전주교육 발전의 중요한 힘”이라며 “학부모의 다양한 목소리가 학교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정읍농두클럽, 장애인·가족 등에 짜장면 대접

국제아이즈넷 전북지구 남지방 정읍농두클럽(회장 이무영)이 장애인과 가족, 활동지원사 등 250여 명에게 직접 만든 짜장면과 수박을 대접했다.

정읍농두클럽은 지난 25일 정읍시장에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사랑의 짜장면 나눔 봉사’를 펼쳤다.

중식당 청화루를 운영하는 이무영 회장은 짜장면 식재료를 후원하고 이른 아침부터 직접 음식을 조리했다. 회원 10여 명도 음식 준비와 배식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이날 식사에는 나라사랑 이상훈 약사가 후원한 수박도 함께 제공돼 무더위에 지친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시원한 정을 전했다.

정읍농두클럽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알림

▲제8회 사랑의 별빛 콘서트= 일시: 29일(토) 오후 5시, 장소: 전주 원산 체육공원 공연장, 주최: 전북장애인문화예술포럼, 연락처: 063-231-6669, 010-7304-5665